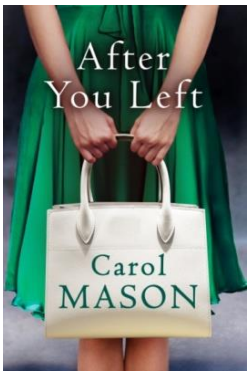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AFTER YOU LEFT
가제 : 당신이 떠나고
저자 : Carol Maso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4월 1일
분량 : 318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서스펜스, 로맨스

***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판권 계약 체결**
*** 올해 4월 출간 이후 187,000부 이상 판매, 영국, 호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3위, 아마존 공식 판매순위 3주 연속 20위권**
*** "앨리스와 에블린, 두 여성의 이야기는 죽은 사람들만큼이나 매 순간 서글퍼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탐구한다." – 베스트셀러 작가 루이스 캔들리쉬(Louise Candlish)**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져버린 연인, 이별의 충격보다 헤어진 이유를 알 수 없어 메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뜻밖의 인연으로 시작된 치유의 길. 올해 봄 출간된 이후 꾸준히 베스트셀러 차트에 머물러 있는 이 소설은 30대, 70대 두 여성 앨리스와 에블린의 시선을 통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노트북』을 연상케 하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연히 만난 앨리스와 에블린은 긴 세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여 자연스레 가까운 친구가 되고, 두 사람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한다. 현대와 1960년대를 오가며 둘의 안타까운 사랑과 기묘한 인연이 수수께끼처럼 뒤엉키다 마침내 예상치 못한 접점을 찾기까지 우리의 호기심을 내내 붙들어 놓는 소설이다.

앨리스가 저스틴과 결혼을 하고 하와이로 꿈 같은 신혼여행을 떠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은 마치 정해진 경로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연히 바에서 만난 저스틴은 처음부터 집요하리만치 강력하게 앨리스에 대한 마음을 표출했고, 지극히 직선적인 노력에 앨리스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딱히 거절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작된 사랑만큼 이별도 갑작스럽게, 청천벽력처럼 찾아왔다. 그것도 신혼여행 도중에, 낯선 하와이의 호텔방에서, 자고 일어나니 자기 짐만 챙겨서 사라진 것이다. 저스틴이 남긴 건 쪽지 하나. "모두를

위해서 이제 그만 둬야 할 것 같아.”라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 전부였다. 앨리스는 바보도 아니었고 남자를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었기에 저스틴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정도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앨리스를 고의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저지른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왜, 하필 결혼 직후에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신변에 위험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비참하게 버려진 것보다 앨리스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건 이래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30년 남짓 살아온 그녀가 이런 버림을 처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대여섯 살 정도였던 어린 시절, 아빠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은 기억, 그로 인해 무너진 엄마는 앨리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해주지 않았고 그저 아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수수께끼로만 남은 두 번의 일방적인 이별, 앨리스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무게였다.

결혼 전 유일한 가족이던 엄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터라,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기분에 사로잡힌 앨리스는 어쩔 수 없이 일상으로 돌아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회화 큐레이터 일을 다시 시작한다. 어느 날, 알츠하이머 환자들 여러 명이 단체로 앨리스가 일하는 갤러리를 찾아오고, 앨리스는 에디라는 환자를 데리고 온 에블린과 처음 만난다. 잃어버린 옛 기억을 되찾는 데 그림이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영국 곳곳을 돌며 그림 전시회를 다니는 중이라는 특이한 관람객들 중에서도 에디는 기억이 가물가물할지언정 훤칠한 외모와 유쾌한 언변으로 금세 눈에 띄었다. 자연스레 에블린, 에디와 가까워진 앨리스는 에블린에게서 수십 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작된 가슴 아픈 인연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친구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 단 하루 함께 보낸 이후 평생의 인연이라 확신하고서도 에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에블린, 이별의 고통과 지키지 못한 사랑으로 내내 후회하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두 사람의 기구한 세월, 그리고 재회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애틋한 노력까지, 그 모든 사연을 들으며 앨리스는 저스틴에게서 버림 받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며 두 사람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공통점만이 이들에게 느끼는 진한 친밀함의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된다. 에블린이 요양원 단체 관람객 틈에 섞여 앨리스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온,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앨리스라는 이름은 대학에 들어온 뒤에 바꾼 이름이고 그 전까지 ‘에이프릴’로 불렸다는 사실을 에블린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뜻밖의 결말까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두 시대, 두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진다.

**<저자 소개>**

캐롤 메이슨(Carol Mason)은 영국에서 태어나 모델, 호텔 사무원,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했다. 『The Love Market』, 『Send Me A Lover』, 『The Secrets of Married Women』 등의 소설을 썼다.

제목 : WHERE THE DEVIL HIDES
가제 : 숨은 악마
저자 : Craig Russell
출판사: Constable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서스펜스

*** 전 세계 23개 언어로 출간된『Jan Fabel』시리즈의 작가가 새롭게 완성한 새로운 호러, 서스펜스, 심리 스릴러 소설**

*** 1930년대 체코슬로바키아 시골의 정신병동에 갇힌 여섯 명의 살인마와 그들을 찾아간 젊은 정신과의사의 만남, 프라하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수수께끼**

1935년, 유럽이 또 한 차례 거대한 전쟁을 준비 중이던 시절 스물아홉 살 젊은 의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정신과 전문의로 작은 병원에서 일하던 빅터가 향한 곳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독수리 성'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곳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치광이 살인마 여섯 명이 세상에서 분리된 곳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섯 악마'로 불리는 이들이 각각 독방에 갇혀 있는 특별한 정신병원에 찾아가 무엇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는지, 그 내면에 자리한 정신적, 심리적 요소를 끄집어내고 발견하는 것이 빅터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의 저녁, 빅터는 여섯 명의 악마가 있다는 정신병원과 가까운 기차역에 마침내 도착했다.

짐 가방이 너무 많아 병원까지 실어다 줄 차량을 구하려고 역 앞을 서성이던 빅터는 혼잡한 역 근처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광경을 발견한다. 고성과 비명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악마야, 당장 죽여야 해!" 웅성대는 소음 속에서 이 외침을 들은 빅터는 함께 짐을 옮기던 역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그 쪽으로 달려갔다. 기껏해야 자신보다 한두 살 어려 보이는 남자가 잘 차려 입은 젊은 여성을 뒤에서 끌어 안고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 상태였다. 노동자 차림을 한 남자는 넋이 반쯤 나간 표정으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거듭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악마이며, 자기 눈에는 그 실체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당장 목을 베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작은 피스톨을 그에게 겨누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 의논하는 중이었다. 빅터는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독수리 성'에서 일하게 될 신임 의사이며, 소동을 피운 남자는 조현병으로 심각한 환각에 시달리는 것 같으니 자신이 돕겠다고 제안했다. 새파랗게 어린 외모에 심각한 상황에서 지식이나 펼치려는 의사인 줄 알고 콧방귀를 뀌던 담당 경찰은 독수리 성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마침내 칼을 든 남자와 그에게 붙들린 여자 곁으로 다가간 빅터는 침착하게 남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황망해하던 그는 처음엔 빅터가 뭐라고 하든 자기 할 말만

해댔지만, 결국 빅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마음 속에 일어난 혼란 때문에 속은 것이다, 그가 갑자기 빅터에게 주목한 건 그 말이었다. '속았어, 내가 속은 거야.'라고 연신 혼잣말을 내뱉던 남자는 내내 붙들고 있던 여자를 풀어주더니, 칼을 쥔 손에 다시 힘을 주었다. 그리고 경찰과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칼을 치켜들고 빅터를 향해 달려들었다. "악마는 바로 당신이야!"라는 외마디를 지르던 그는 경찰이 쏜 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도착한 첫날부터 소동에 휘말린 빅터는 조서를 쓰기 위해 경찰서까지 함께 가서 앉아 있던 중, 또 다른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다. 얼마 전부터 프라하에서 날뛰는 살인마, '가죽 앞치마'의 소행이 분명한 살인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20년째 살인사건만 전담해온 담당 형사, 스몰락은 도축업을 하던 부친의 가게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몰랐으면 좋았을 피비린내 나는 광경에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가죽 앞치마'가 다녀간 현장은 솟구쳐 올라오는 구역질 때문에 차마 몇 분 이상 살펴볼 수도 없었다. 희생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신을 샅샅이 분해하고 얼굴은 없애버리는 그의 살해 수법은 유럽 전체를 공포로 물들이기에 충분했다. 빅터가 독수리 성에서 만날 여섯 악마에게서 이런 광기 어린 행동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 정신 나간 살인마를 잡아들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빅터는 오랫동안 여섯 악마를 관리하고 치료해온 병원원장 로마네크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가죽 앞치마'와 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살인을 저지른 여섯 명의 악마와 한 명씩 대면하기 시작한다.

병원 바깥에서 또 한 명의 악마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는 살인마 손에 무고한 목숨이 계속 사라지는 가운데 새로 개발된 정신분석 기법을 동원한 빅터의 상담치료는 이어지고, 이야기는 '가죽 앞치마'를 쫓는 스몰락 형사와 병원을 지키는 로마네크 박사의 시선을 따라가며 양쪽의 상황을 나란히 전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갇혀 있는 악마들과 거리를 활보하는 새로운 악마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악마를 겨눈 화살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점을 향한다.

『잭 더 리퍼』, 오페라로도 만들어진 단편 소설 『호프만 이야기(Tales of Hoffmann)』와 더불어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연상시키는 이야기는 시종일관 암울하고 섬뜩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가장 잔인한 심리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저자 소개>**

크레이그 러셀(Craig Russell)은 전 세계 23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스릴러 시리즈 『Jan Fabel』을 비롯해 역사적,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 여러 편의 소설을 쓰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크리스토퍼 갤트(Christopher Galt)라는 필명으로 논픽션 작가로도 활동해 왔다. 『Jan Fabel』 시리즈는 독일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6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화제를 낳았다. 2015년 소설 『The Ghosts of Altona』로 블러디 스코틀랜드(Bloody Scotland)가 수여하는 '올해의 범죄 소설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 작품인 『Lennox』 시리즈로 2017년에도 해당 협회의 수상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THE FINISHING SCHOOL
가제 : 기숙학교
저자 : Joanna Goodman
출판사: Harper Paperbacks
발행일: 2017년 4월 1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소설

* **"성장 소설이자 미스터리 소설. 무엇보다 솜씨 좋게 그려진 인물들로 채워져 중독성 강한 이야기가 정점을 이루는 작품이다." – 라이브러리 저널**
* **"커튼을 활짝 젖히고 욕망과 배신, 위험한 비밀로 이루어진 매혹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소설" – 에드가 상 수상작 『The Long and Faraway Gone』의 작가 루 버니**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기숙학교 '리세 인터네셔널 스위스'는 유럽 전역은 물론 전 세계 부유층 자제들이 모이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커스티는 부모님이 리세에 다니라고 설득할 때부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위로 언니 셋을 낳고 키우느라 지친 엄마가 막내인 자신의 십대 후반기까지 감당하려니 너무 버거워서 택한 학교라는 것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커스티는 학교 성적이 우수했고, 지원을 하면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였기에 엄마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결정에 따르기로 한 커스티는 살아온 환경도, 리세에 입학한 목적도 모두 자신과는 다른 화려하고 당당한 여학생들 틈에서 금세 기가 죽었지만 다행히 구세주가 나타났다. 남부러울 것 없이 치장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던 동급생, 크레시다 스트라우스였다. 크레시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 릴리와 단짝이 된 커스티는 그럭저럭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졸업반까지 무사히 잘 지냈지만, 결국 졸업을 몇 주 앞두고 황급히 스위스를 떠나야만 했다. 어느 날 밤, 크레시다가 학교 4층에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리세 기숙학교를 떠나 캐나다로 다급히 돌아온 지도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커스티는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성공 가도에 올랐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성공 뒤에서 또 다른 아픔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그토록 기다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난임 치료까지 받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번 실망으로 돌아왔다. 그럴수록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집착에 가까운 강렬한 욕망으로 나날이 커져만 갔다. 애를 쓴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 낳는 일에 온 정신을 쏟는 커스티로 인해 결혼 생활까지 삐걱대던 어느 날, 커스티 앞으로 두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한 통은 리세에서 단짝이던 릴리로부터, 다른 한 통은 리세 기숙학교에서 보낸 편지였다.

릴리가 이미 유방암으로 사망했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릴리의 변호사는 그녀가 죽기 전 컴퓨터에 쓰다가 만 편지를 발견했다는 설명과 함께 미완성된 편지를 커스티의 에이전시로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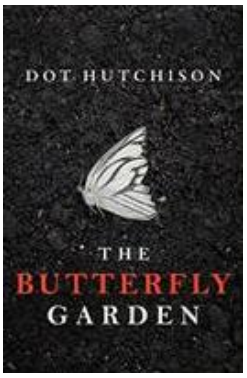
왔다. 익숙한 릴리의 말투가 녹아 있는 문장과 마주하자마자 완전히 잊은 줄 알았던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바늘처럼 커스티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다. 릴리는 크레시다의 사고 이후 커스티가 홀연히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남아 졸업까지 했다고 전하며, 커스티에게 놀라운 의혹을 전했다. "난 크레시다가 사고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는 사건 당시 크레시다의 추락은 불운한 사고였다고 정리했고 워낙 유명한 학교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 그 비극적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커스티와 함께 누구보다 크레시다와 가까웠던 릴리는 그토록 긴 세월이 지나, 누군가 고의로 크레시다를 밀었을 수도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리세 기숙학교에서 온 편지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학교를 빛낸 100인의 여성'을 선정했는데 커스티가 그 중 한 명이라는 소식과 함께 기념식에서 축하 연설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졸업도 하지 않은 학교에서 보낸 초대장이라니, 릴리의 편지가 없었다면 거절했을 요청이지만 커스티는 참석을 결심한다. 그리고 정말 크레시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학교는 왜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찾아내고야 말리라 다짐했다.

크레시다는 재학 시절, '벨베티안 소사이어티'라는 비밀 집단의 존재를 알아내고 큰 흥미를 보였다. 1970년대부터 교내 사조직으로 만들어진 이 은밀한 클럽은 구성원 중 두 명이 무슨 이유에선지 퇴학을 당한 이후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크레시다는 여전히 운영된다고 믿으며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는 곳인지 알고 싶어했다. 100주년 행사를 맞아 어두운 기억만 가득한 리세 기숙학교에 도착한 커스티는 크레시다의 의혹이 사실이었고, 어쩌면 사고로 둔갑된 추락사고가 이 정체 모를 집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찾아낸다. 수십 년째 리세에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들까지 관련된 이 사교 클럽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리지만 자라온 환경 탓에 이미 특권 의식에 찌든 아이들, 하지만 뼛속 깊이 외로움에 몸을 떨던 소녀들을 유혹하는 악마의 손길들, 화려한 명성과 위엄으로 포장한 고급 사립학교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조애나 굿맨(Joanna Goodman)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 현재 토론토에서 살면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The Home for Unwanted Girls』, 『Harmony』 등의 소설을 발표했으며 「오타와 시티즌(The Ottawa Citizen)」, 「피들헤드(Fiddlehead)」, 「뉴 쿼털리(The New Quarterly)」 등에 작품이 소개됐다.

제목 : THE BUTTERFLY GARDEN
가제 : 나비 정원
저자 : Dot Hutchison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분량 : 286 페이지
장르 : 소설/ 범죄 스릴러




*** 2016년 굿리즈 초이스 어워드 호러소설 부문(Goodreads Choice Awards Best Horror) 후보작,**
*** 출간 당시 아마존 '스릴러, 서스펜스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저택에 유리 지붕이 덮인 거대한 정원이 있다. 정원이라는 표현보다 작은 공원, 혹은 수목원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법한 그곳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높은 절벽과 그곳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 꽃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을 할 만큼 곳곳에 만발한 색색의 꽃들과 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 꽃만큼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나비도 무수히 많은 이 놀라운 정원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벽히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곳엔 꽃과 꽃 사이를 누비는 나비들 말고도 등에 날개를 가진 존재들과, 이들을 돌보고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다.

열여섯 살부터 스무 살이 안 된 소녀들을 납치해서 등에 커다란 날개 문신을 새기고, 등이 완전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괴이한 취미를 가진 남자, 정원사와 그의 소름 끼치는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비밀 정원도 모습을 나타낸다. 스물다섯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살아서 절대 나가지 못할 거라 믿고 단념했던 벽을 넘어 다시 가족들을 만날 준비를 할 때, '마야'라 불리는 한 여성은 FBI 요원 두 명과 함께 조사실의 차가운 책상 앞에 마주 앉았다. 나이도 가늠할 수 없고 언제부터 그 정원에서 살기 시작했는지, 본명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마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 리더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사건 담당 형사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격한 감정 변화를 보인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시종일관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은 과연 마야가 피해자 중 한 명인지, 가해자들을 도와 범죄에 관여했는지 혼란을 일으켰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도 마야의 정체를 알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빅터 하노베리언과 브랜든 에디슨, 두 FBI 요원은 형사들과 마주하면 죄가 없어도 긴장하는 뭇 사람들과 달리 편안하게 자신들을 쳐다보는 마야와 마주앉아 나비 정원에 대해, 그 안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건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진짜 실체를 조사한다. 이미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정원사의 행각과 화려한 정원의 진실이 그렇게 마야의 입을 통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가정 형편이 워낙 좋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돈을 벌러 나선 마야는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 일곱 명과 함께 허름하지만 큼직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때가 마야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절이었다. 엄마처럼 모두를 돌봐주는

언니도 있고,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이곳 저곳,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 하나같이 호탕하고, 겁이 없고, 정이 많았다. 언니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고된 생활을 이겨내던 마야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린 곳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정원이 딸린 조용한 방안이었다. 깨어나기를 기다린 듯한 낯선 여자가 곁에서 물잔을 내밀고, 알약을 삼키라고 했다.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이 알 수 없는 곳에 끌려 왔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알약을 주는 대로 삼키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마야는 복도를 지나는 소녀들을 보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마야가 눈을 떴을 때 앞에서 기다린 사람은 늘 보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곳의 주인, '정원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원사는 자신이 수집한 소녀들의 등에 정교한 나비 문신을 새기는 것으로 '표식'을 했다. 제각기 다른 문양, 다른 패턴의 날개가 어깨 윗부분부터 허리 아랫부분까지 화려한 문신으로 뒤덮였고 마야 역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느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며 그 문신을 받아야만 했다. 자신의 작품을 보기 위해 등이 터진 검은색 실크 드레스만 입은 채, 정원사의 '나비'들은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그는 내키는 대로 소녀들을 유린하고, 겁탈하면서도 자신이 소녀들을 구제해 준 고마운 존재라고 스스로 굳게 믿었다. 지옥 같은 생활은 정원사의 장남, 에이버리로 인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아버지의 잔인하고 일그러진 면만 빼 닮은 그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소녀들을 괴롭혔다.

살아서는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소녀들의 이야기에 체념한 마야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의 생활과 정원사가 정한 규칙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가끔 찾아오는 수상한 변화를 감지한다.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소중한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자취를 감추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풀어줄 리도 없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분명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 붙들린 소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잔혹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스물 한 살이 되는 날 사라지는 나비들, 정원사는 자신이 정한 이 나이에 도달한 소녀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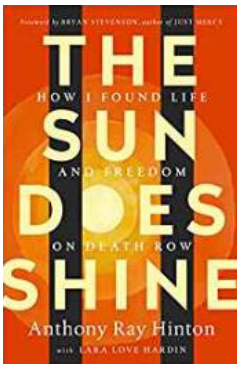
악마 같은 첫째 아들와 달리 아버지와 형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내내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정원사의 둘째 아들, 데스몬드로 인한 내부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유리 정원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기회를 포착한 마야와 소녀들은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던 바깥 세계에 다시 발을 내딛는다. 그리고 허물어진 정원 아래에서 벌어지던, 정원사의 역겨운 살인 행각이 드러난다.

**<저자 소개>**

다트 허친슨(Dot Hutchison)은 보이스카우트 캠프와 서점, 수공예품 판매점 등에서 일하다 '햄릿'에서 모티브를 얻은 소설 『A Wounded Name』을 발표한 후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 NON-FICTION

제목 : THE SUN DOES SHINE
가제 : 태양은 반드시 빛난다
저자 : Anthony Ray Hinton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3월 2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이 이야기는 위대한 국가는 과거를 쉽게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자 희망과 사랑, 기쁨을 찾는 인간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없음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증거다. 인류에게 선이 내재되어 있다는 믿음을 되살려주는 책" - 데스몬드 투투 신부**
*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형수들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저자만큼 내게 감동을 준 사람은 없다. 강렬하고 특별한 그의 이야기는 미국과 전 세계 독자들에게 비슷한 감동을 주리라 믿는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Just Mercy』 의 저자 브라이언 스티븐슨**

어머니와 둘이 살던 스물아홉 살 청년이 평소와 같이 슈퍼마켓 창고에서 야간 청소작업을 하던 시각, 25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어느 레스토랑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총을 든 강도가 침입해 레스토랑 주인을 납치하고 돈을 훔친 뒤 총상까지 입힌 것이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경찰에 창고 청소를 하던 힌튼이라는 청년이 강도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곧바로 힌튼의 집으로 출동했고,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피스톨 권총을 발견해 압수했다. 앨라배마 주 법의학 조사관들은 이 총이 레스토랑 강도는 물론 그 일대에서 벌어진 두 건의 총기 살해사건에 사용됐다는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힌튼은 곧바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이 지난 2015년 4월, 힌튼은 마침내 무죄를 인정 받아 자유를 되찾았다. 그는 미국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형수로 최장 기간 수감된 사람으로 남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는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군가 악의적으로든 실수로든 잘못 전하거나 오해만 해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화가 치미는데, 무려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그것도 두 건이나 저지른 악질 범죄자로 국가가 낙인을 찍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게다가 가진 돈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던 가난한 흑인 청년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첫 변호사로 지명된 사람은 주 경찰이 발표한 총기 분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전문가조차 구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14년 동안이나 결백을 입증해줄 법적인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 1999년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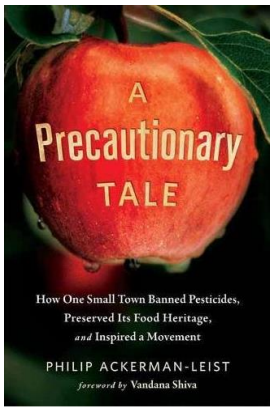
그의 사연을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주 정부와의 길고 지루한 싸움 끝에 무죄를 인정 받은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을 쓴 그의 변호인은 법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30여 년을 독방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들과 무수한 범죄자들을 만났지만, 저자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은 없었다고 단언한다. 타고난 유머 감각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기분 좋게 만드는 저자의 놀라운 능력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30여 년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 사형수 동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시간들을 견디고 또 견디며 살아 남은 저자의 생존기이자 투쟁기는 소설보다 더한 충격과 함께 사회 정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되짚어보게 한다.

<목차>

서문 - 브라이언 스티븐슨
1. 사형 죄
2. 모든 미국국민
3. 2년간의 시범운행
4. 냉정함을 뒤흔드는 것
5. 예정된 유죄
6. 모든 진실
7. 유죄, 유죄, 유죄
8. 입 다물어
9. 항소
10. 암살단
11. 죽을 날을 기다리다
12. 영국 여왕
(이하 생략, 총 24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앤소니 레이 힌튼(Anthony Ray Hinton)은 살인 누명을 쓰고 30여 년을 사형수로 살다가 2015년에 석방됐다. 이후 교도소 개혁과 믿음, 용서의 힘을 널리 전파하며 살고 있다.




제목: A PRECAUTIONARY TALE
가제: 화학농업에 대한 경고 이야기
(부제: 농약에 반대하며 식량 유산을 지키고 시민 운동을 일으킨 어느 작은 마을의 이야기)
저자: Philip Ackerman-Leist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11월 9일
분량: 240 페이지
장르: 사회

* **"작은 마을이 화학 농업에 맞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례와 함께 독성 물질이 없는 환경을 추구하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따를 수 있는 본보기를 소개한 책" - 『Tomatoland』의 저자 베리 에스타브룩**
*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용감한 지역 정치인들과 힘을 모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유럽 환경단체 Pesticide Action Network Europe 의장, 프랑소아 베일러렛**

이탈리아 티롤 지방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 창고, 곡창 지대로 알려진 말스는 거대한 알프스의 가파른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비옥한 토양이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업을 이어 왔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문화적 교차로이자 인접한 마을마다 유서 깊은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와인, 치즈, 허브, 채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들이 옛 방식 그대로 생산되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해마다 알프스의 절경을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 왔다. 그러나 골짜기 아래에서 운영되던 대규모 사과농장들이 알프스 동쪽 경사를 따라 우후죽순으로 점점 확장되더니 급기야 스멀스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농업을 이어온 농장 근처까지 올라왔다. 1년에 최소 20회 이상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살포하는 이 초대형 농장들의 불쾌한 농업 방식은 연중 바람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의 특성상 공기 중을 떠돌던 농약이 근처 유기농장에 피해를 주는 사태로 이어졌다.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고수해온 주민들은 유기 농작물 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몰렸다. 심지어 건강하던 가축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작은 마을 말스의 주민들은 두 팔을 걷어 부치고 해결에 나섰다. 깨끗한 농업, 건강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형 사과 농장들의 농약 살포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민운동은 마침내 말스 지역 전체에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쾌거를 거두었다. 농부이자 식량 공급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자는 이 작은 마을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시민정신이 일군 이 놀라운 성과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변화의 물결이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전 세계가 본보기로 삼아도 될 만한 모범적인 시민 운동의 진행 과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수백 년

간 대를 이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농민들에게 최첨단 기술로 중무장한 대기업의 무자비한 농약 살포는 생계와 오랜 명성을 뒤흔들고, 지리적 특성상 시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을 마음껏 악용하며 평생을 양심적으로 살아온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과 고유한 자연 환경을 잃을 순 없다는 생각에 지역 수의학자들, 의사들, 심지어 여성들이 모이는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까지 각자 맡은 곳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모두 한 목소리로 마땅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곳곳에 이미 침투한 산업적인 농업의 폐해를 지금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시민의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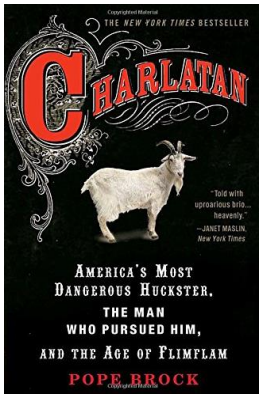
<목차>

서문
1. 부유 물질
2. 저항의 뿌리
3. 완충 장치가 없다
4. 시간이 흘러도 변화는 없고
5. 씨앗
6. 유혹
7. 유기농민들의 봉기
8. 울음소리로 가득한 집회
9. 예방책
10. 침대 시트로 만든 현수막
11. 선언문
12. JA!

**<저자 소개>**

필립 애커맨 레이스트(Philip Ackerman-Leist)는 그린 마운틴 칼리지 교수로 미국 최초의 식품 공급시스템 관련 온라인 석사 과정인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들었다. 20년 이상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미국 등 여러 지역의 농장에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저서로는 『Rebuilding the Foodshed』, 『Up Tunket Road』 등이 있다.

제목 : CHARLATAN
가제 : 돌팔이 의사
저자 : Pope Brock
출판사: Broadway Books
발행일: 2009년 1월 13일
분량 : 344 페이지
장르 : 역사




*** 맷 데이먼이 주연과 프로듀서를 맡아 영화로 제작될 예정**
*** "가장 위험한 사기 행위, 넋을 잃고 빠져들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 – USA 투데이**
*** "엄청나게 놀랍고, 동시에 음울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책. 순진하게 속고 무지한 채로 살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상기시킨다." – 「워싱턴 포스트」 북 월드**
*** 「뉴욕타임스」 평론가 자넷 매슬린이 선정한 2008년 가장 흥미로운 도서 10권에 선정**

비아그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돌면 일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금이나 100여 년 전 미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작은 의대에 겨우 진학한 어떤 의사는 시대와 나이를 초월한 수많은 남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묘책을 아주 우연히 발견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농부가 시들어버린 정력을 한탄하면서 "염소처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내뱉은 말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바로 염소의 고환을 남성의 음낭에 이식하는, 파격적인 수술이었다. 태어난 지 4-5주 된 어린 염소의 고환을 바로 적출해서 남성 환자의 음낭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이 기막힌 수술은 짧게는 10-15분, 넉넉잡아 30분 정도면 마무리되고 환자는 부분마취만 받으면 되므로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얼핏 들어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 돌팔이 의사의 수술은 놀랍게도 남몰래 고민하던 남성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고, 그는 당시 돈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명성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인류의 원예 품종가"라는 웃지 못할 별칭으로 불리던 사람, 존 R. 브링클리 '박사'의 뻔뻔하고 대찬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23년, 귀찮고 짜증나는 미국의 법률 망을 피해 텍사스 주 국경 바로 건너 멕시코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한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온갖 치료법을 광고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즉각 잡아 끄는 점성술과 컨트리 뮤직이 양념처럼 더해져 그의 위험천만한 치료법은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던 브링클리의 화려한 의술 '쇼'는 1930년, 캔자스 주 의료협회로부터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 후 결국 막을 내렸지만 그에게는 아직 세상에 보여줄 거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캔자스 주 지사에 두 번이나 출마해 거의 당선될 뻔했던 그는 무수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말도 안 되는 의료 행위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사기 행각을 철저히 파헤친 미국 의학협회 조사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거침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저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시술로 떼돈을 벌어 들인 이 입담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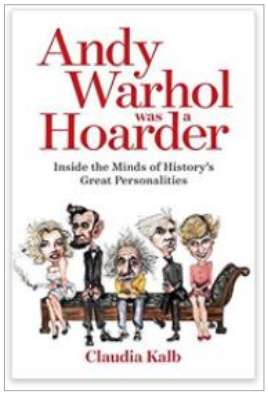
은 사기꾼의 놀라운 일생과 더불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광고 기법과 대중에게 어필하는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 이후 미국의 대중문화와 광고 방식에 큰 영향을 남긴 뜻밖의 사실을 이 책에서 상세히 보여준다. “도덕성이 끔찍하리만치 결여된 비전문적 행위”,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라는 공식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돌팔이 의사의 이야기는 맷 데이먼의 주연과 연출로 곧 영화화될 예정이다. 2008년 첫 출간된 당시 수많은 호응을 받은 흥미진진한 역사서이자 한 사기꾼에 관한 전기로, 저자의 광범위한 조사와 당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언론 기사가 생생함을 더한다.

<목차>

머리말. 칼 아래, 그리고 총 아래. 1930년 9월 15일.
- 소제목 없이 총 54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포프 브록(Pope Brock)은 「롤링스톤」, 「에스콰이어」, 「GQ」, 「런던 선데이 타임스 매거진」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1908년에 실제로 일어난 증조부의 살인 사건을 다룬 저서 『Indiana Gothic』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제목 : ANDY WARHOL WAS A HOARDER
가제 : 잡동사니 수집광 앤디 워홀
(부제 :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머릿속으로)
저자 : Claudia Kalb
출판사: National Geographic
발행일: 2016년 2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역사/ 정신의학

* **"마릴린 몬로부터 앨버트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등 여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현대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상당히 흥미로운 추정을 제기한다." - 「북리스트」**
* **"비즈니스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을 일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책"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심리학 연구결과, 정식 출간된 전기 등 다양한 정보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인공이 된 인물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고 꾸역꾸역 쌓아두는 수집광 앤디 워홀? 자폐증 환자 아인슈타인? 나르시시즘에 젖어 살았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낯설고 놀랍기까지 한 이런 수식어들이 실제로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을 묘사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면?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이라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적인 혼란 상태가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살다가 떠난 열두 명의 세계적인 명사들의 정신 건강을 추적한 흥미로운 책이 완성됐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았던 마릴린 몬로, 심각한 불안에 괴로워하던 찰스 다윈, 임상적인 우울증 기준에 부합하는 증상들을 보였던 링컨 등 개개인의 업적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관한 정보는 실제 해당 인물이 일기 등을 통해 남긴 기록이나 신경성 폭식증에 시달렸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경우처럼 철저히 은폐됐던 녹음 기록 등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학계, 언론, 개인 기록을 포괄한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현대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이 역사적인 인물들의 머릿속, 마음속에는 이들이 유명인사이기에 앞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심리적 고난에 예외 없이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인간의 행동과 경험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전 세계적인 명사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멀쩡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괴짜 같은 구석이 적지 않다는 것은 굳이 통계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의 개인적인 삶을 다룬 기록이나 영화, 책, 신문기사에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흔히 보고 느끼는 면면을 발견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유명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반인들도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는 자신의 모습과 내면에서 소용돌

이치는 실제 자신의 본능, 욕구, 모습의 격차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괴로울 때가 있다. 이유 없이 눈 앞에 놓인 펜들을 가지런히 줄 세우고, 이상하게 친구들과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일을 잘 하면서 승진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희한한 구석이나 특정 음식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먹어치워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이고 무엇이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일까? 어디까지가 길고 무서운 병명을 갖다 붙일 만한 행동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안 좋은 습관일까? 저자는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알 법한 열두 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혼란스러웠던 정신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역사적인 기록은 물론 정신의학 전문가, 전기 기록자, 사회학자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포함된 이들의 이야기는 친숙한 인물들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사실들을 토대로 정신 건강에 관한 우리의 시선, 태도를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마릴린 몬로
앤디 워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에이브러험 링컨
크리스틴 요르겐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베티 포드
찰스 다윈
조지 거슈윈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앨버트 아인슈타인
맺음말

**<저자 소개>**

클라우디아 칼브(Claudia Kalb)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건강, 과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썼다. 특히 우울증, PTSD, 진통제 중독에 관한 글을 수백 편 기고했다. 「뉴스위크」 선임 작가로 근무했고 「스미소니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도 글을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작가 겸 편집자로 활동 중이다.

제목 : NEXT IS NOW
가제 : 변화, 다음은 없다
저자 : Lior Arussy
출판사: North Star Way
발행일: 2018년 5월 15일(초판)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영

***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대표가 소개하는 성공적인 변화의 기술, 유연하게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5단계 전략**

소비자의 기호와 관심은 계속해서 바뀌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정확히 쫓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업계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수백 년 전통'의 고유한 기술과 경영 방식을 고집스레 지켜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윤을 유지하는 곳도 물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도 기업도 모두가 잘 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기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논쟁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현실이 되었고,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책이나 강의, 전문가들이 넘쳐나는데 왜 실제로 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찾기 힘들까? 전체 사업장 규모로 고용인 7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이례적인 변화 기술을 알리고 이끌어온 저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실시한 공동 조사에서 현재 기업들이 변화하려고 애쓰는 시도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비율은 9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 헛된 노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짚어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변화의 의미와 방식을 뿌리부터 재정의하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5단계 전략을 알려준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인상 깊은 사례들과 날카로운 통찰이 결합되어 변화를 무거운 의미로 여기기보다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수용해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변화라는 과제가 앞에 놓이면 누구나 일종의 반발심 혹은 거부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기존의 방식, 생각, 기술을 버리거나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잘못됐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단을 받고 하면 안 되는 생활습관에 대해 의사로부터 철저한 당부를 받고서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운동도 안 하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태도가 바로 그런 심리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존에 고수하던 방법으로는 발전도 성과도 없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절히 느끼고 바뀌려는 의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경우에도 그 열망이 성공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바로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익숙한 것을 무조건 싹 갈아치우려고 하거나, 좋다는 방법은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려는 막무가내 식 돌진은 몇 주, 심지어 며칠도 못 가서 슬그머니 변화의 불씨를 꺼뜨리고 원래 하던 방식을 살짝 바꿔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든다. 이에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변화하는 방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전부 옛 시대의 요소가 된 현대 사회에서 변화는 특정 기간에 반짝, 힘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 부어 해결하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의무가 아닌 필수 요소로 체감하고 개인의 삶이라는 차원에서 진심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저자는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분석하고, 생각과 방향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변화의 싹을 열심히 키우고, 그 결과가 오롯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독이는 5단계 전략과 시대에 맞는 변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각종 사례, 조사결과 등을 통해 소개한다.

<목차>

서문. 상상의 한계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 것 - 윌리엄 C. 테일러
머리말.
1장.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
2장. 변화에 대한 두려움
3장. 변화 유연성의 비밀: 적극적인 참여
4장. 당신은 변화에 알맞은 사람일까?
5장. 정면으로 마주하라!
6장. 분석하라!
7장. 재정의하라!
8장. 키워라!
9장. 가져라!
10장. 변화 유연성을 이끄는 법
11장. 변화 유연성을 유지하며 살기

**<저자 소개>**

리오르 아루시(Lior Arussy)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 '스트래티비티 그룹(Strativity Group)'의 창립자이자 CEO로. 메르세데스 벤츠, 톰슨 로이터, HSBC, 페덱스, 펜실베니아 대학교 등 현재까지 총 70만 명 규모의 기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계 변화에 알맞은 기업 변화를 이끌어 왔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에 250편 이상의 글을 기고해 왔으며 잡지, 신문, MSNBC, 블룸버그 TV 등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 저서로는 『Customer Experience Strategy』, 『The Experience!』 등이 있다.

제목 : READING BETWEEN THE LINES
가제 : 글씨에 사람이 보인다
저자 : Emma Bache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취미 / 자기계발

*** 영국 최고의 필적학 전문가가 소개하는 필체와 개개인의 성격, 심리의 관계, 그리고 글씨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

스마트폰으로 주고 받는 메시지와 이메일이 일상이 된 요즘은 종이에 펜으로 직접 쓴 편지나 메모를 주고 받을 일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우연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손 글씨를 보고 놀랄 때가 있다. 성격도 깔끔하고 매사에 꼼꼼한데 의외로 도저히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지독한 악필인 사람도 있고, 설렁설렁 지내면서 만사를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글씨는 또박또박 너무 반듯하고 예쁜 사람도 있다. 그저 흥미로운 간극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개개인의 필체에서 성격과 심리를 면밀히 분석하는 '필적학'은 교육, 건강, 범죄수사 등 실질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분야에 속한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필적학자로 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이처럼 호기심을 자아내는 필적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아무 생각 없이 종이에 쓴 글자의 두께와 글자 하나하나의 높이, 곡선의 둥근 정도, 획을 그을 때 가해진 힘,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기울어진 정도 등 글자가 만들어내는 내용과 별도로 이러한 모든 요소에서 그 사람의 대체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는 재미 있는 사실과 함께, 독자가 자신의 필적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의 글자를 분석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성격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미 기원전 500년에 공자는 "필체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은 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손에 펜을 쥐고 그려낸 글자에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은 필적학에서 오래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다. 실제로 저자는 필적학자로 활동을 시작한 1989년부터 기업체가 신입 직원을 고용할 때나 범죄 사실을 꽁꽁 숨기려는 사기범들을 잡을 때, 마음 상태를 말로 드러내지 못하고 글로도 표현하지 못할 때 그저 아무 내용 없는 글자를 써보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듯이 우리의 필체도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심리상태, 생각에 따라 미묘하게 바뀐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스트레스가 짓눌린 상태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정신적인 압박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어떤 욕구를 지닌 채 사는지, 심지어 가장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진 파트너와 가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저자는 각 장마다 글자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중심으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재미 있는 게임과 테스트, 연습문제도 제공하여 자신의 필적과 다른 사람의 글씨체를 분석해볼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인물들의 글자를 재미 삼아 분석해볼 수도 있다. 연필이든 볼펜이든 좋아하는 필기구를 쥐고 줄이 없는 백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필적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
2장. 기울기
3장. 알파벳 별 특징
4장. 글자에 가해진 압력과 깊이
5장. 크기와 간격
6장. 쓰는 속도
7장. 형태의 질적인 수준
8장 획과 글자의 모양
9장. 연결과 끊어짐
10장. 서명
11장. 알파벳 별 추가적인 특징
12장. 글자가 나타내는 경고 메시지
결론.

**<저자 소개>**

엠마 베시(Emma Bache)는 영국의 유명한 손 글씨 전문가로, 1989년부터 글씨로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연구하는 필적학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심리치료, 최면요법을 공부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뒤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체 분석을 통한 심리치료, 본죄심리 분석, 중독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데일리 메일」, 「데일리 텔레그라프」, 「가디언」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타임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칼럼니스트로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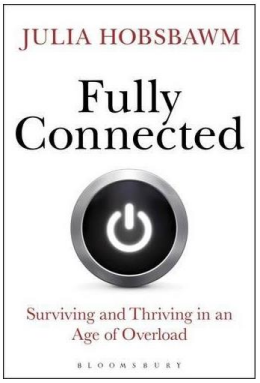
뉴스레터 업데이트: FULLY CONNECTED by Julia Hobsbawm

Bloomsbury Business is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two of our titles have been shortlisted in separate categories for the Chartered Management Institute's Management Book of the Year Awards 2018:

Fully Connected, Julia Hobsbawn – Category: Management Futures
The Growth Director's Secret, Andrew Brent – Categor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I thoroughly enjoyed Fully Connected. Amazing insights on a subject critical to modern working and living. I wholly endorse it, not just as a must-read but also as a much-needed compass to navigating the 21st century workplace. - Dambisa Moyo, Economist and Author
- Julia Hobsbawm is the unofficial UK Queen of Networking, but she understands that networking is about much more than lunches and parties. As a student of networks in history, I read Fully Connected with great pleasure and profit. - Niall Ferguson, senior fellow,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 Brimming with ideas and insights – fascinating, intriguing, thoughtful. - Lynda Gratton, Professor of Management Practice, London Business School
- I am buzzing about this book. Really outstanding. - William Eccleshare, President and CEO, Clear Channel International
- This is one of those brilliantly insightful books everyone has to read to understand the zeitgeist. - Baroness Helena Kennedy QC, Principal, Mansfield College Oxford
- Fully Connected is the most profound book about connectivity published this century. Hobsbawm nails it. She's the Marshall McLuhan of our always-on age. - Andrew Keen, author of 'Digital Vertigo' and 'The Internet is Not The Answer'
- Julia Hobsbawm reminds us that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s are about human connections not technology. She wants us to see that stilling the shrill voices of tech will connect us better. Fully Connected is a very good read. - Stephan Chambers, The Marshall Institut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Julia Hobsbawm's potent mix of practical advice and fresh academic insight is the book for any thoughtful executive, hard-pressed or otherwise. - Stephen Barber, Equity partner, Pictet Group; Global Chair, Prix Pictet
- A great read, which provides fascinating insights into how connectivity is changing our lives and how we can thrive in a Fully Connected world. - Ian Goldin, Professor of Globalisation and Development at the University of Oxford
- Our social networks are both huge opportunities and lurking dangers, depending on how we manage them. Julia Hobsbawm's stellar new book, Fully Connected, pinpoints their pervasive effects on what and who we know, what jobs we get, our political views, our health and wellbeing, and more – and then tells us to improve our social health. A must-read for individuals and policy makers alike. - Professor Herminia Ibarra, INSEAD

제목 : FULLY CONNECTED
가제 : 올바른 네트워킹
저자 : Julia Hobsbawm
출판사: Bloomsbury Business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비공식적인 영국의 '네트워킹 여왕'인 저자는 네트워킹이 점심을 같이 먹고 파티를 여는 것 이상의 과정임을 잘 아는 사람이다." -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 니알 퍼거슨**
* **"유대를 쌓기 위한 방법을 일러주기보다 유대감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책. 디테일이 풍성하여 강한 설득력이 느껴진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의 유대가 아닌 기술일 뿐임을 상기시키고, 기술이 인간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줄 거라는 확고한 주장을 들여다보도록 이끈다." - 런던 경제대학교, 스티븐 챔버스**

"단순히 병이 없고 노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 세계보건기구는 1946년 '건강'을 이와 같이 정의했다.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무수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건강'은 이처럼 엄연히 건강의 3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심에서 제외됐다. 무엇이 사회적 건강이고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지 전략을 제시한 자료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인터넷이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 생활 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건강은 위의 정의가 내려진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양질의 정보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수없이 내던져지고,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저자는 바로 이것이 사회적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비만,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운동을 장려하려는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직업적인 필요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사생활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의 질과 범위는 분명 다르고 여기에 명확한 경계가 없을 때 우리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저자는 개인의 영역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타인과의 '과도한 연결성', '관계의 과부하'로 요약할 수 있는 부적절한 네트워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최초로 제안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기술의 폐해가 명확하니 기술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 발달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시스템을 전부 감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무수한 네트워크로 작동되고 우리는 그 속에 확산된 정보를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

적인 삶도 영위해 나가지만, '로그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은 득보다 해가 될 수 있다. "적정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들과 올바른 지식을 나누는 것". 저자는 사회적 건강을 이렇게 정의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보망에서 헤매지 않고 여러모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순기능만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요령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저자는 가상 세계가 주축이 되는 과도한 연결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개인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서 건강도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확신을 토대로 행동 경제학과 사회적 심리학, 신경과학, 경영학, 사회적 네트워크 등 폭넓은 분야의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절정에 이른 연결성
1부. 웰빌로 가는 길
1. 적대적인 풍경
2. 신체의 건강
3. 필수 요소의 새로운 계층화
2부. 혼합된 자아
4. 사회적 영혼
5. 일하는 존재
6. 네트워크와 네트워커
결론. 온전한 유대가 형성된 미래
부록: 6각형 식 사고 – 사회적 건강을 위한 여섯 가지 실전 전략
맺음말. 다리 위에서 바라본 모습

**<저자 소개>**

줄리아 홉스바움(Julia Hobsbawm)은 기업가, 미디어 평론가, 강연자로 활동하면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성과 현대사회에 꼭 맞는 유대감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왔다. 2011년 세계 최초로 '네트워킹 교수'가 되었으며 현재 런던 카스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대영제국 4등 훈장을 받았다.